

독감 유행 주의보...광주·전남서도 바이러스 검출

2·3월 개학때 확산 우려...당국, 위생 철저 당부

조류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감시도 강화

을 초 광주에 이어 전남지역에서도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돼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을 들어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광군 한 남자 초등학생(12) 호흡기 환자에서 독감 바이러스(B형)가 검출됨에 따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말 수거한 10대 여학생의 검체가 지난 1월8일 최종적으로 독감 바이러스로 판명됐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도 22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통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독감 바이러스는 겨울 초입 단계인 11월말에 발견되지만 올해는 1개월 이상 늦게 검출, 개학기인 2~3월에 자칫 독감 유행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22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기침, 인후통, 두통 증상을 보인 전남도내 10대 남학생의 검사 대상물에서 독감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유래 조류 인플루엔자와 중동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지역 내 협력병원,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수행 중인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사업을 통해 유행 중인 바이러스를 신속·정확하게 분리해 급성 호흡기 질환의 바이러스성 원인 병원체의 구명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새로운 형의 바이러스 출현을 감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내외 협력을 통해 백신주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두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은 “손을 자주 씻고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 휴지로 눈·코를 가려야 한다”며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영광·장성 등 2개 지역에

서 ‘독감 호흡기 질환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 1000명 중 10명이 인플루엔자(독감) 증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주 대비 8.3% 늘어난 수치다.

따라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남 지역에서 독감바이러스가 지난 2013~2014년 절기와는 달리 이번 2014~2015년 절기에는 올해 2주째에 검출되는 등 늦게 유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528건의 호흡기 환자 검사 대상물에서 68건(12.9% 양성률)의 독감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등 181건(34.3% 양성률)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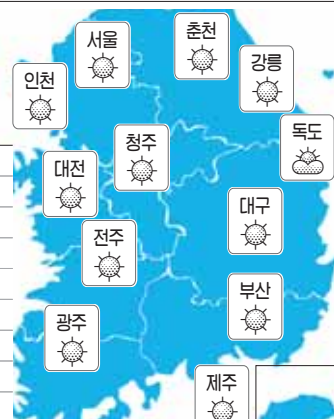
해돋이 07:38
해질 17:51
달돋이 09:14
달질 21:10

모처럼 맑은 하늘

중국 상해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8	보성	맑음	-4/8
목포	맑음	-1/7	순천	맑음	1/9
여수	맑음	2/8	영광	맑음	-3/7
나주	맑음	-5/8	진도	맑음	-2/8
완도	맑음	-1/8	전주	맑음	-4/7
구례	맑음	-2/8	군산	맑음	-3/5
강진	맑음	-4/8	남원	맑음	-5/7
해남	맑음	-4/8	흑산도	맑음	3/6
장성	맑음	-5/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서~북서	0.5
남부 먼바다	북서~북	1.0~2.5	서~북서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
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1.0~2.0	서~북서	1.0~1.5
면바다(서)	북서~북	1.0~2.0	서~북서	0.5~1.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55 16:31	09:09 21:41
여수	11:14 23:27	04:40 17:17

◇주간 날씨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1/9	1/8	4/8	3/7	2/6	0/5	0/6

◇생활지수

	25
	40
	70

정부, 일제 강제동원 2091명 확인 명부 등재

피징용자 명부 중 最古

정부가 작성한 가장 오래된 ‘일제 강제동원 명부’를 분석·검증한 결과 강제동원된 209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국내외로 강제동원된 인원을 782만명(중복 동원 포함)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60만명(중복 동원 포함)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공식 확인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정시피징용자 명부’를 검

증한 결과 수록된 5157명 중 2091명을 확인, 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제동원 명부에 등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명부는 이승만 정부가 지난 1953년 피해신고를 모아 만든 것으로, 피징용자 명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명부는 재작년 6월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 과정에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와 ‘3·1운동피살자명부’와 함께 발견됐다.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징용됐던 날짜, 한국으로 귀환한 날짜, 귀환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사망·행방 불명·국외거주 등) 등이 적혀있다.

/연합뉴스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숨져

자택 귀가중 승용차에 치어

박삼봉(58) 사법연수원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에 따르면 박 사법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6시 35분께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 도로를 건너다 테라칸 승용차에 치였다. 박 사법연수원장은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사법연수원장이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면서 “정확한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사법연수원장이 대모산 등반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22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에서 한 노인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폐혈증, 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병언 수사’ 명예 실추 순천경찰 청렴도 ‘꼴찌’

광주·전남청, 업무 평가...동부경찰·여수경찰 1위

‘유병언 번사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던 순천경찰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청렴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순천경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순천경찰의 경우 지난해 7월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급, 소홀하게 다뤘다가 물의를 빚는 등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천경찰 외에 함평, 장흥경찰도 낮은 점수를 받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2년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현직 경찰관 금고털이 사건으로 ‘비리’ 경찰의 명예를 찢던 여수경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해온 데 따른 높은 평가를 받아 21개 경찰서 중 가장 점수가 높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이 평가한 광주지역 5개 경찰서 중에는 뇌물 수수 혐의에 연루된 경찰 등으로 서부경찰이 2년 연속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동부경찰은 지난해 이뤄진 청렴업무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0억 한정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